

서울을 소재로 이 시대 도시적 현실을 해학적 톤으로 표현해 낸 작품



《서울특별시》 김종은 지음/민음사/248쪽/값 8,000원

민음사 제정 2003년 '오늘의 작가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는 소설 제목이 직설적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서울에 대한,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처음 써본 장편소설로 당선의 영예를 안은 이는 신예 소설가 김종은 씨(29)다. 그는 당선 통보를 받고 자신의 이름을 단 첫 책이 나온 지 보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상기된 표정이었다. 먼저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물었다.

“등단한 지 3년이 지났지만(그는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소설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소설을 쓰기 위해 지난 겨울에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이라는 글감과 주제가 참신하다는 말을 하자, 그는 자신의 관심이 오래전부터 ‘기억’과 ‘서울’을 향해 있었다고 넉넉히 일러준다. 그의 말대로 이 소설은 오늘날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그리고 서울의 생태 등 ‘서울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는 서울을 중요한 소재로 다뤘던 작품들인 염상섭의 《삼대》,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조해일의 《왕십리》 등의 맥을 잇는 작품이다.

소설의 줄거리는 친구 사이인 호기, 유진, 찰리, 중만 등 네 명의 젊은이가 고속도로변 휴게소를 털기로 모의하고 그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눈



에 띄는 스토리텔링이나 장편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흥미진진한 구성의 묘는 덜하지만 이 소설의 행간에는 서울을 오랫동안 예의주시해 온 순수 서울 산책 작가의 만만찮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것은 ‘고향’의 재래적인 의미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는 부재한다는 통찰이다. 심사를 맡았던 김화영 교수는 “이 작품의 성공은 이 시대의 도시적 현실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해학적 톤을 찾아냈다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이 소설이 가진 새로움을 부각시켰다. 작가는 ‘고향’과 ‘서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고향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산과 들녘을 떠올리잖아요. 푸근한 어머니 품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서울에서 태어난 우리 세대는 모두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도심 빌딩과 그 변두리를 부유할 뿐이에요. 고향의 개념 자체가 아예 인위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등장인물 네 사람 중 작가 자신의 모습이 가장 많이 반영된 인물이 누구냐고 묻자 김종은 씨는 네 사람 모두 작가의 분신이라고 말하면서 이력만 놓고 본다면 ‘유진’의 개인사가 자신의 가족의 이력과 가장 닮았다고 밝힌다. 소설 속에서 커피숍과 호프집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유진의 가족사적인 배경이 레스토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부모의 이력과 비슷하다는 것.

그는 현대는 예술이 문화의 기호품으로 대중들에게 소비되고 있는 시대라면서 소설 역시 기본적으로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옥의 소설과 토머스 핀천, 레이몬드 카버 등 미국현대 소설의 세례를 받았다고 밝힌 이 작가는 앞으로도 서울을 테마로 한 소설들을 지속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